

16강 기적 이끈다... '선봉장'된 조규성

벤투호의 '신데렐라' 조규성(24·전북사진)이 한국 선수 월드컵 한 대회 최다 골 신기록을 세우고 16강 기적에 앞장 설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과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을 치른다.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가나와의 2차전에서 2-3으로 패한 한국은 조 3위(승점 1 골득실 -1 득점2)에 올라 있다.

포르투갈이 조 1위(승점 6 골득실 +3 득점5), 가나가 2위(승점 3 골득실 0 득점5)고 우루과이는 최하위(승점 1 골득실 -2 득점0)다.

한국이 16강에 가려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데,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에 적은 골 차로 승리해야 한다.

16강의 대전제인 포르투갈전 승리를 위해선 골이 필요하다.

오늘밤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 "포기는 없다"
한 골만 더 넣으면 한국선수 단일 월드컵 최다 골 기록

우루과이전에서 침묵했던 한국은 가나를 상대로 2골을 뽑아내며 화력을 끌어올렸다.

1차전에서 교체로 나왔다가 2차전에 주전 공격수 황의조(울림피아코스)를 밀어내고 첫 선발 기회를 잡은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머리리만 두 골을 터뜨렸다.

아프리카 수비수들을 상대로도 높이와 힘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가나전 활약을 볼 때 조규성이 포르투갈전에서 벤투호의 최전방을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

2골로 한국 선수의 월드컵 단일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을 작성한 조규성이 포르투갈전에서 득점하면 한국 선수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 득점 신기록도 새로 세우게 된다.

역대 월드컵 한 대회에서 2골을 넣은 한국 선수는 조규성 이전에 2002 한일월드컵 안정환과 2018년 러시아월드컵 손흥민 뿐이었다.

또 조규성이 한 골을 더 추가하면 한국 선수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에서도 박지상·안정환·손흥민과 동률을 이룬다.

조규성은 벤투호의 16강 진출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낳은 최고의 스타다.

우루과이와의 1차전 키오프 전 3만 명 수준이었던 조규성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가나전을 거치면서 1일 기준 16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축구 선수 중에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캡틴' 손흥민(토트넘) 다음으로 많다.

2019년 K리그2 FC안양에서 프로로 데뷔

위한 조규성은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실력까지 갖췄다.

큰 키에도 연계 플레이에 능했던 조규성은 감전 상무에서 군 생활을 하며 근육량을 늘렸고, 결정력까지 눈에 띄게 향상됐다.

피나는 노력으로 실력을 키운 조규성은 올 시즌 김천과 전북에서 총 17골을 터트리며 생애 첫 K리그1 득점왕에 등극했고, 월드컵까지 기세를 이어 왔다



스카이텔레비전/뉴스

Qatar 2022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일 10시 한때(한국시간)

일정	조	경기시간
11/21 (월)	A	0 카타르-에콰도르 2
	B	6 잉글랜드-이란 2

	A	0 세네갈-네덜란드 2
11/22 (화)	B	1 미국-웨일스 1
	C	1 아르헨티나-사우디아라비아 2
	D	0 덴마크-튀니지 0

	C	0 멕시코-폴란드 0
11/23 (수)	D	4 프랑스-호주 1
	F	0 모로코-크로아티아 0
	E	1 독일-일본 2

	E	7 스페인-코스타리카 0
11/24 (목)	F	1 벨기에-캐나다 0
	G	1 스위스-카메룬 0
	H	0 우루과이-대한민국 0

	H	3 포르투갈-가나 2
11/25 (금)	G	2 브라질-세르비아 0
	B	0 웨일스-이란 2
	A	1 카타르-세네갈 3

	A	1 네덜란드-에콰도르 1
11/26 (토)	B	0 잉글랜드-미국 0
	D	0 튀니지-호주 1
	C	2 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 0

	D	2 프랑스-덴마크 1
11/27 (일)	C	2 아르헨티나-멕시코 0
	E	0 일본-코스타리카 1
	F	0 벨기에-모로코 2

	F	4 크로아티아-캐나다 1
11/28 (월)	E	1 스페인-독일 1
	G	3 카메룬-세르비아 3
	H	2 대한민국-가나 3

11/29 (화)	G	1 브라질-스위스 0
	H	2 포르투갈-우루과이 0

	A	2 네덜란드-카타르 0
11/30 (수)	A	1 에콰도르-세네갈 2
	B	0 이란-미국 1
	B	0 웨일스-잉글랜드 3

	D	1 튀니지-프랑스 0
12/1 (목)	D	1 호주-덴마크 0
	C	1 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 2
	C	0 폴란드-아르헨티나 2

	F	캐나다-모로코 00:00
12/2 (금)	F	크로아티아-벨기에 00:00
	E	코스타리카-독일 04:00
	E	일본-스페인 04:00

	H	대한민국-포르투갈 00:00
12/3 (토)	H	가나-우루과이 00:00
	G	카메룬-브라질 04:00
	G	세르비아-스위스 04:00

16강대진 절반 완성

프랑스vs폴란드 아르헨vs호주 격돌
메시의 아르헨, 이번 충격 딛고 16강행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대진의 절반이 채워졌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아르헨티나도 메시의 마지막 춤을 위한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16강 단골이었던 멕시코, 최대 이변을 보여준 사우디아라비아가 짐을 싣다. 또 개최국 카타르 역시 조별리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잔칫상만 차려 준 꼴이 됐다.

1일 새벽(한국시간) C조와 D조의 3번째 경기가 모두 끝나며 A~D조의 16강 진출국이 확정됐다. A조에서는 코디각포의 3경기 연속 골을 앞세운 네덜란드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네덜란드는 승점 7점(2승 1무)을 기록했다.

세네갈은 2002 한일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16강에 올랐다. 세네갈은 20년 전 기록인 8강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란과 웨일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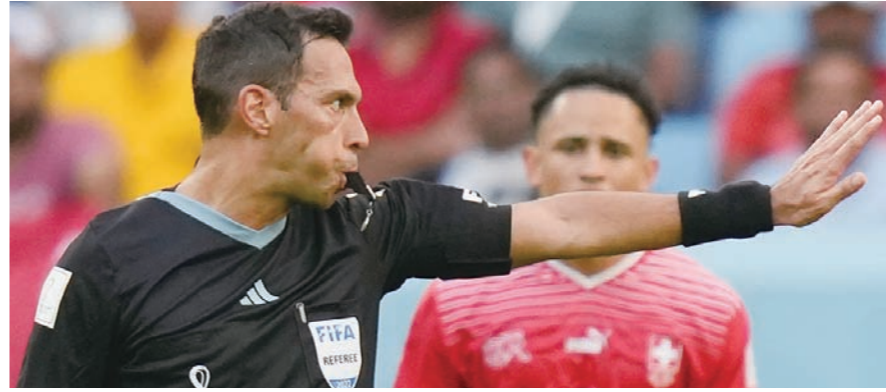
집으로 돌려보낸 B조에서는 잉글랜드와 미국이 16강에 진출했다. 잉글랜드는 같은 연령대 국가인 웨일스를 3대0으로 꺾으면서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잉글랜드는 2승1무(승점 7)를 기록했으며 세네갈과 8강을 놓고 격돌한다.

미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8강 진출에 도전한다. 이들의 상대는 A조 1위 네덜란드다.

C조에서는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사우디에 패하며 이변의 희생양이 됐던 아르헨티나는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멕시코, 폴란드를 차례로 제압했다. 폴란드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에 패하고도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D조에서는 프랑스가 지난 대회 우승국 면모를 보이며 조 1위를 달성했다. 호주는 강호 튀니지와 덴마크를 모두 꺾으며 D조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덴마크를 1대0으로 제압하는 과반을 일으켰다.

나머지 16강 진출팀은 E~H조가 마지막 조별예선 경기를 치르는 2일과 3일에 정해진다. 네덜란드와 미국이 맞붙는 16강 첫 경기는 4일 자정에 열린다.



포르투갈전 주심 파쿰도 테오.

뉴스

포르투갈전 심판 운도 '꽝'

'레드카드 10장' 테오 주심 배정

벤투호의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운명이 걸린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 주심에 '10명을 퇴장'시킨 것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심판이 배정됐다.

1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에 따르면 3일 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과 포르투갈의 대회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아르헨티나 출신 파쿰도 테오 심판이 주심을 맡는다.

2013년부터 아르헨티나 1부리그에서 활동해 온 테오 심판은 지난달 7일 자국 컵대회인 '트로페오 데 캄페오네스' 결승전에서 10명을 퇴장시켜 유명세를 탔다.

당시 라싱이 연장 후반 13분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추가 골로 보카 주니어스에 2-1로 앞서자 양 팀 선수들이 충돌했다.

알카라스가 보카 주니어스 팬들 앞에서 세리머니를 펼쳤고, 이에 화가 난 보카 주니어스 선수들이 그에게 공을 집어던졌다. 이후 양 팀 선수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주심이 보카 주니어스 벤치에 있던 선수 2명을 포함해 5명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앞서 경기 도중 2명이 퇴장당한 보카 주니어스는 총 7명이 레드카드를 받아 더는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아르헨티나 리그 규정상 한 팀 선수가 7명 이하면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 라싱에선 알카라스를 포함해 총 3명이 레드카드를 받았다.

스카이텔레비전/뉴스



리오넬 메시.

뉴스

스카이텔레비전/뉴스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Returnup 리턴업

10년 연속 판매 1위

NO.1

소팔메토 엘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080-722-9988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